

「선진 지역 견학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14. 10. 16 ~ 10. 20(4박5일)
- 방 문 국 : 중국(서안, 곤명)
- 연 수 단 : 16명(의원10명, 공무원6명)

2014년 10월 일



구 미 시 의 회

2014년도 공무국외연수 개요

1. 방 문 국 : 중국(서안, 곤명)

2. 연수목적

-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의 사회·경제적 시대상황 견학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선진 의정활동 의식을 함양하며
- 지역 특성에 따른 경제개발, 교통인프라, 관광개발, 문화재 관리 운영과 시설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한 사례와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시의 발전 방향과 해법을 제시코자 함.

3. 연수기간 : 2014. 10. 16(목) ~ 10. 20(월) / 4박 5일

4. 보고서 작성자 : 김익수 의장 외 9명

5. 여행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1	구미시의회	의 장	김 익 수	단 장
2	"	기획행정 위 원 장	정 하 영	1조
3	"	의 원	강 승 수	
4	"	의 원	김 근 아	
5	"	의 원	김 태 근	
6	"	기획행정 부위원장	양 진 오	2조
7	"	의 원	김 복 자	
8	"	의 원	박 세 진	
9	"	의 원	손 홍 섭	
10	"	의 원	윤 종 호	

목 차

I. 연수개요

- 1. 연수의 목적 2
- 2. 연수세부내용 2
- 3. 연수일정 2

II. 연수국 현황

- 1. 중 국 3
- 2. 서안,곤명 8

III. 주요방문지 견학 내용 10

IV. 방문후기 및 정책제언

- 1. 방문후기 22
- 2. 정책제언 28

I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의 사회·경제적 시대상황 견학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선진 의정활동 의식을 함양하며
- 지역 특성에 따른 경제개발, 교통인프라, 관광개발, 문화재 관리 운영과 시설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한 사례와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시의 발전 방향과 해법을 제시코자 함.

2. 연수세부내용 : 2014. 10. 16(목) ~ 10. 20(월) / 4박 5일

3. 연수일정

일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주 요 일 정
10.16 (목) 제1일	구미 인천 서안 곤명	버스 OZ 347 전용차량 MU2264	04:00 10:00 15:00 15:00	-구미출발(인천공항) -인천공항 출발 ▶고신개발구 홍보관 방문시찰 ▶서안 역사문화 탐방(대안탐 등) -곤명으로 이동
10.17 (금) 제2일	곤명 구향	전용차량	전일	▶석림 자연문화유산 탐방 ▶구향동굴 자연유산 탐방 -석식/토론회 개최(견학시설에 대한 토론)
10.18 (토) 제3일	곤명 서안	전용차량	전일	▶곤명 신농기업그룹 견학 -체험농장 운영실태 비교 견학 ▶서산 용문 탐방 -곤명 시가지 도로교통 관리실태 견학 -석식/토론회 개최(문화재 관리에 대한 토론) -서안으로 이동
10.19 (일) 제4일	서안	전용차량	전일	▶서안 역사문화 탐방 -화청지, 병마용 등 관광지 실태 견학 -석식/토론회 개최(관광산업에 대한 토론)
10.20 (월) 제5일	서안 인천 구미	OZ 348 버스	09:00 17:00 22:00	▶서안성벽 탐방 -인천공항 도착 -구미 도착

II

연수국 현황

중 국

○ 일 반 현 황

- 공식명칭 :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 인 구 : 약 13억 5569만명
- 면 적 : 960만km² (한반도의 44배, 세계 4위)
- 수 도 : 북경(北京, 베이징)
- 언 어 : 중국어, 지역별로 8종류의 방언
- 종 교 : 도교,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 민 족 : 56개
- 국 경 일 : 10월 1일
- 화폐/단위 : 인민폐/위안(元)
- 국가원수/정부수반 : 국가주석/총리
- 체제 및 의회 형태 : 인민공화제, 일당제, 단원제
- 우리나라와의 시차 : 1시간
- GDP : 8조 9393억\$ (세계2위, 2013 IMF 기준)

중국은 장구한 역사와 방대한 국토를 지닌 나라인 만큼 풍부한 문화 유적과 빼어난 산수를 자랑한다. 만리장성, 자금성, 진시황 병마용 등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등 한국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유적들이 많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표의문자(뜻글자)를 쓰고 있는 나라이며,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나라이다.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중국은 공산국가로 대표되는 구시대적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도약기를 맞고 있다. 이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적 자원과 광대한 국토, 그 땅에서 나오는 물리적 자원들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 국 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오성홍기(五星紅旗)'라고 부른다. 빨강 바탕에 있는 큰 별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및 중국 공산당을 나타내고, 작은 별은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당시 노동자·농민·소자산계급(小資産階級)·민족 자산계급(民族資産階級)의 4계급으로 성립된 국민을 나타낸다. 빨강은 혁명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색이고 별의 노란색은 광명을 의미함과 동시에 황인종을 가리킨다. 가로세로 비율은 3:2이다. 공모한 2992점의 도안 중에서, 1949년 9월 27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준비 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현재의 기를 국기로 선정하여 10월 1일 제정하였다.



■ 지 도



■ 기 후

중국은 국토가 넓어 기후도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최남단의 열대에서 서부의 건조기후, 동북삼성의 냉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다양한 기후가 대부분 나타나고, 지형 고도 면에서도 동부의 저지에서 서부의 8000m급 고산지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중국의 식생도 열대우림에서 냉대의 타이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종류가 많고 다양하며 토양 또한 그러하다. 여름기온이 35℃를 넘는 장강연변이 있는가 하면 겨울 기온이 -30℃까지 내려가는 동북지방도 있다. 실크로드 지방에서는 밤낮의 기온 차가 20~30℃까지 나기도 한다.

■ 인 구

중국 인구는 13억을 넘어섰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막기 위해 한족(漢族)에 한해 1가구 1자녀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이런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낙태를 사회적으로 방조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가톨릭교회와 줄곧 갈등을 빚어 왔으며, 산아제한의 규제를 피하려고 출생 후 고의적으로 호적에 올리지 않은 아이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아이들은 감춰진 아이라는 의미의 '흑해자(黑孩子, 헤이하이즈)라고 불리며, 공교육 및 사회적 혜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 민 족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통일 국가이다. 그 중 94% 이상을 한족(漢族)이 차지하고 있으며, 장족, 회족, 묘족, 만주족 등 55개의 소수민족이 나머지 6% 정도를 차지한다. 그 중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조선족은 약 200만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살고 있다. 소수민족의 인구 증가율은 한족보다 빠른 편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53년 6.06%에서 1990년

8.04%, 2000년 8.41%, 2010년 8.49%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국가의 안정된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모든 민족의 평등이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잘 짜여진 소수민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무엇보다 소수민족의 지역자치를 시행토록 하며 민족 고유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소수민족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주고, 한족과 달리 두 자녀를 허용하는 등의 우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환경과 삶의 질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정치적 통합 차원에서 연방제와 분리주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정 치

중국의 정치체제는 크게 중국공산당, 국가기관, 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세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 상하이의 한 교외에서 창당되었다. 창당 시기 당원은 57명에 불과했지만, 몇 년 안 되는 짧은 시기에 국민당과 맞서는 세력으로 급성장하였고, 1949년 중국에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일당 독재의 집권당이 되었다. 1977년 약 3,500만 명이었던 중국공산당 당원은 1997년에는 약 6,900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개혁개방 이래 두 배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중국공산당 당원은 8,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국가기관은 입법부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 사법부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 1949년 9월 중국 사회주의 혁명 세력들의 통일전선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초기 임시 헌법에 해당하는 「정협공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의회 역할을 대행하였다. 제1차 전인대 개최 이전까지 중국 사회주의 운동의 합법성을 상징하는 최고

권력기구였으나 전인대 출범 이후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정책 및 법령을 선전하거나 대외 업무를 협의하는 외곽 조직으로 바뀌었다. 최근 중국의 대외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정협의 대외 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 경 제

1949년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으로 중국은 공산주의 경제 이론에 기반을 둔 계획경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치우쳤던 계획경제는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계획경제의 실패와 이에 대한 경제정책 수정의 결과로 1979년 이후 개혁개방 정책이 등장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 동안 중국은 유례 없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2010년 국민총생산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2011년 3월, 중국공산당은 제17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2차 5개년 계획(2011~2015)의 기본 틀을 확정했다. 그 주된 내용은 '내수 확대 전략의 지속, 소비요구에 부응하는 장기적인 효력을 가진 제도의 확립, 더 많은 소비의 형성, 투자와 수출전략의 조정을 통한 경제 성장 견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이십여 연간 중국의 쾌속경제성장을 이끌어 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투자와 수출이었다. 그런데 투자, 수출과 함께 일국 경제 성장의 3대 요소인 소비는 GDP의 성장과는 어울리지 않게 답보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내수의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특히 2008년 발생한 국제 금융위기는 일정 규모의 내수 시장 없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음을 체득하게 하였다.

내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중국정부는 공업화와 도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동부해안지역과 서부내륙지역, 사회계층 간에 존재하는 소득 격차를 줄이고 민생을 개선하는 정책을 우선시할 것이다. 사회의 안정이야말로 13억 인구의 중국이 지속적으로 안정적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 서 안 - 오천년 중국 역사의 중심지

- 위 치 : 산시성의 성도, 중국 서북부 최대 도시
- 면 적 : 9,983km²
- 인 구 : 약 851만
- 행정구역 : 8개 구, 5개 현

서안의 옛 명칭은 장안(長安)으로 중국의 13개 왕조가 이곳을 수도로 삼았으며 동양과 서양의 문화교류 통로였던 실크로드의 기점으로서, 아테네, 카이로, 로마와 함께 세계 4대 고도(古都)로 꼽히는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이다.

2012년 서안시 총생산은 4,36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8% 성장 하였으며 5년간 경제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서안시의 5대 주요 산업은 제조업, 첨단산업, 관광, 문화, 서비스 산업 등이 있으며 전체 산업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서안시에 있는 개발구(산업단지)들은 단순한 산업단지 모델이 아닌 각각의 특성을 살린 산업 주거 상업이 결합된 도시형모델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중 시안 고신개발구에 다수 한국기업이 진출해있다. 서부지역 12개 성도의 소비시장 중 충칭, 청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고 주요 내구소비재 보급률은 중국 전체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동부 상하이시와 비교할 경우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나 향후 1000만명 규모의 거대 소비시장으로 발전이 예상되어 큰 폭의 성장 잠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서안시에는 종로우(鍾樓) 샤오짜이(小寨) 등 6개의 도심 상권이 있으며 삼성전자가 서안의 남서쪽에 들어 오면서 그쪽 지역에 소규모 한국 상권이 형성중이다.

서안시에 2012년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착공에 이어 서부 내륙 지역의 소비능력 제고 등에 따라 향후 기업 진출 증가와 더불어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안시에 진출한 업체로는 심텍, 한국광물자원공사, KMW, SK, LG상사,

SK텔레콤(지분투자) 등이며 삼성전자가 70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지난 5월에 설립했다.

최근 서부지역의 산업기반이 확충되고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소비 능력이 제고됨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곤 명 : 운남성의 성도, 4계절 꽃이 피는 도시

- 위 치 : 운남성의 중부, 서남지역 중심도시의 하나이자 운남성의 성도
- 면 적 : 21,015km²
- 인 구 : 약 648만명('11)
- 행정구역 : 5개 구, 1개 시, 8개 현

운남성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다. 그 옛날 차를 싣고 매리설산 뒤편 염전으로 소금을 구하러 가던 차마 고도의 한자락이며, 동남아와 육로로 통하는 관문이기도 하다. 곤명의 토질은 철분이 많이 섞여 있어서, 담배나 차와 같은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하다. 운남의 보이 차와 구감차가 유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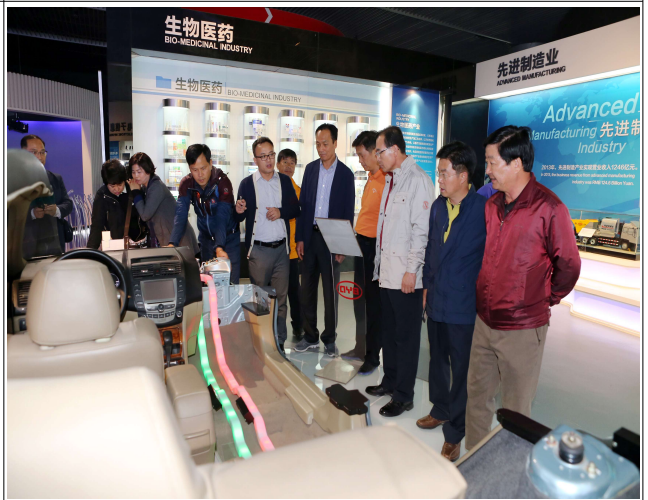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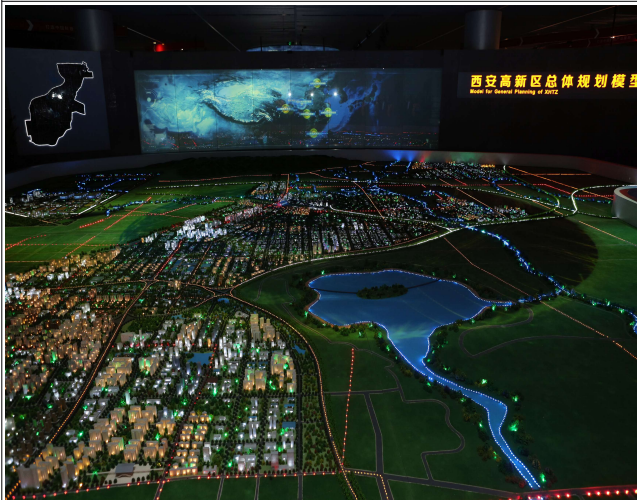
위도 상으로는 아열대 기후대에 속해 있지만 고원지대라 연평균 기온이 15도 정도로 기후가 온화하다. 시내 중심부의 높이가 우리나라 한라산 정상보다 더 높은 해발 1,891m이다. 기후가 온화하여 한여름에도 혹서가 없고, 겨울에도 역시 혹한이 없다. 사계절이 모두 봄처럼 포근하고 언제나 꽃이 만발하다고 하여 사람들은 "춘성(春城)"이라고 칭한다.

곤명은 26개의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각 민족들 간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이다. 26개의 민족들은 각기 다른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 형태 역시 모두 다른 부분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오늘날 곤명의 문화를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었으며, 이로써 곤명은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이 되었다.

Ⅲ

주요 방문지 견학 내용

■ 서안 고신개발구 홍보관 견학



고신개발구 홍보관 견학(2014. 10. 16.)

(현장 설명 : 관리위원회 홍성균 팀장)

○ 연수일정 첫 방문지인 서안고신개발구는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서부 대개발 정책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과학기술, 교육수준이 높고 글로벌 IT기업들의 생산, 연구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서안에는 아래와 같이 7개의 국가급 개발구가 있으며 국가에서 반포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우혜정책 외에 서부대개발 우혜정책, 산시성의 외상투자기업 우혜정책도 누릴 수 있다. 중국 서부지구에 적용 가능한 우혜정책으로 세수, 투융자, 토지사용 혜택 등이 있다

개발구 명칭	주요 입주기업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전자IT, 현대제조업, 바이오산업, 현대서비스업 등
경제기술개발구	현대제조업, 수출기업, 하이테크산업, 서비스아웃소싱 등
항공산업기지	항공산업, 현대제조업, 하이테크산업 등
항천산업기지	우주항천산업, 반도체조명, 태양광, 서비스아웃소싱 등
서안국제물류단지	종합보세구, 무역, 물류, 창고 등
산바생태구	금융, 무역, 출판, 문화, 서비스아웃소싱, 회의전람 등
곡강신구	문화산업, 여행레저업종 등

○ 삼성전자가 산시성 서안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서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과 서부지역의 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진출 현황】

- 1기 투자규모 70억달러로 중국내 단일 외자투자 규모중 최대
- 2012.4.10 시안서 MOU체결 및 9.12 착공식 거행
- 2014.5.9 삼성전자 반도체 준공식 개최
- 부지 : 총34만5000평 부지에 연면적 7만평 규모
- 생산 : 10나노급 내드플래시(V-NAND)

○ 삼성전자의 시안 진출은 서부대개발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산시 성이 광산 및 장비제조업 위주에서 IT산업 및 R&D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 삼성전자는 “시안 메모리 반도체 공장의 가동으로 한국, 중국, 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 3거점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3거점 체계란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그리고 모든 반도체 제품을 생산, 조정하는 한국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 삼성의 시안 투자 배경에는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 값싼 노동력 및 풍부한 전력, 용수 등과 산시 성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

○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삼성전자의 진출은 관련 기업 200여개 동반 진출, 일자리 1만여 개, GDP 120-150억위안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500대기업 유치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 시안 국제화대도시 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 향후 시안지역에 우리교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삼성전자 및 1~3차 협력업체와 동 계기를 활용 시안을 진출하는 자영업자들이 대폭 늘어날 전망(현재 1,100여명의 교민수)
- 이 같이 유입되는 교민들로 인해 장기적으로 한인상권도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조선족동포의 숫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대안탑 역사문화유산 탐방



대안탑 탐방(2014. 10. 16.)

○서안시 남쪽 약 4km지점의 안탑촌에 있는 대안탑은 원래 명칭은 자은 사탑이다. 652년 당나라 고종 때 건립된 4각형의 누각식 탑이며, 명나라 때 외벽에 한 겹의 벽돌을 더 둘러쌓았다. 모두 7층이며, 전체 높이는 64m이다. 천축을 다녀온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하여 석탑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자재와 비용을 구하기 어려워 표면만 벽돌로 쌓고 내부는 흙으로 채운 토심전탑을 세웠다. 이 탑은 견고하지 못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졌고, 704년에 측천무후의 명으로 허물고 다시 건립되었다.

○탑신은 1층 이상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둘레가 급격히 줄어든다. 탑 안에는 목조 계단이 설치되어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옛날에는 과거시험에 급제한 거인들이 이 탑에 올라가 이름을 새겼다고 하는데, 이를 '안탑 제명이라 한다. 지금도 탑 앞에는 당나라 때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1000여 년 동안 산시성에서 배출한 거인들이 이름을 새긴 석각이 남아 있다.

■ 광활한 카르스트지형 석림 자연문화유산 탐방



석림(대소석림)탐방(2014. 10. 17.)

운남성 곤명시에서 동남쪽으로 약 86km정도 떨어진 석림 이족 자치구에 있으며, 약 400평방키로미터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에 돌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고생대에 형성된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인 석림은 2억 7천만년 전만 하더라도 망망대해 밑이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천만년 전 지각 변동으로 솟아오르면서 바다가 아래로 내려가고 지금의 절경이 바다 위로 솟아오른 것이다. 이따금 바다 속 생물 화석이 발견되는 것이 그것을 추측하는 단서이다.

석림은 그 규모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한 도보로 관람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 여겨졌지만, 약간의 이슬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람객들은 도보로 관람하고 있었다. 우리를 포함해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석림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관람하였다. 석림은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으로 기암괴석 봉우리가 숲을 이루는 지형으로 높이는 5~10m, 높은 것은 30~40m이르는 것들도 있다.

높이가 적은 석림을 소석림, 높은 석림을 대석림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석림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공원내 시설물의 건축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으며, 화장실 건축이나 중간 중간 놓인 휴지통을 보더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석림의 입장료는 성인 1인당 150위엔으로 중국 국민들의 소득수준에 비하면 매우 비싼 수준인 것 같다.

■ 중국 최대 규모의 종유석 동굴인 「구향동굴」 견학



구향동굴 견학 (2014. 10. 17.)

구향동굴은 곤명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져 있으며, 총 길이가 3000m가 넘는다. 약 6억 년 전에 형성된 이곳은 계곡과 폭포, 천태만상의 석순들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종유석 동굴이다. 1992년에 일반에게 공개되었으며, 높이 53m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 동굴로 들어갈 수 있다. 인류문화의 발상지라고 할 만한 옛날 옛적 사람들이 살던 삶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동굴 속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노출을 피하면서도 먹을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천연요새였음을 짐작케 한다.

곤명 신농기업그룹 농원 방문



곤명 신농기업그룹 농원 방문 (2014. 10. 18.)

곤명 신농기업그룹 농원은 대단위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새로운 농업 기업 그룹 중 하나로 재배, 재배단지, 처리(신선, 냉동, 건조), 물류, 마케팅, 판매, 체험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지 면적은 200,000m², 하루 관람객 수는 평균 6,000여명이고, 하루 체험 수입비만 8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날도 이미 몇 천 명의 학생이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로 중국인구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평소 농업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양진오, 강승수 의원은 현장 총책임자(봉진숙)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대단위 가족 농장 체험 공간이 구미시에도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서산 용문 및 곤명호 탐방



서산 용문 및 곤명호 탐방(2014. 10. 18.)

서산용문

서산은 곤명 시내로부터 서남쪽으로 1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해발 2,350m, 길이 약 40km이다. 운남성에서 가장 경치 좋은 산으로 알려진 서산은 먼 곳에서 바라보면 봉우리들이 마치 소녀가 하늘을 바라보며 잠들어 있는 형상이라 하여 ‘수미인산(睡美人山:잠자는 미인의 산)’이라고 부르며, 누워 있는 부처의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와불산(臥佛山)’이라고도 부른다.

리프트를 타고 20여분 올라가면 해발 2,280m 서산 꼭대기에 다다르게 된다. 거기서 800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서 절벽 속을 뚫은 석굴을 구경

하게 된다. 서산삼림공원 벼랑 위에 있는 용문석굴은 1781년부터 1853년까지 72년 동안 3대에 걸쳐 도교의 수도승과 신자들이 절벽을 깎아서 약 7km에 이르는 길을 만든 것이다. “용문에 한번 오르면 몸값이 100배 오른다”는 속설이 있다고 현지인들은 전한다. 그밖에도 곳곳에 1000년 전 송나라 때에 세워진 화정사와 태화사, 능허각 등 사찰들이 많다.

□ 곤명호(중국에서 6번째로 큰 담수호)

남북으로 40km, 동서로 8km로 길쭉하게 뻗어있고, 면적이 340km²인 중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담수호이다. 처음 봤을 때는 바다인줄 착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면적이다. 해발 1,885m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원의 진주”라고도 불리며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이 8m로 그다지 깊지 않아 유람선을 타고 즐길 수도 있고, 겨울에 얼음이 얼면 스케이트를 탈 수도 있다고 한다.

■ 곤명 시가지 탐방



곤명 시가지(광장) 답사(2014. 10. 18.)
-2층버스와 광장 바닥에 그려진 도시 지도-

■ 양귀비의 온천 휴양지 화청지 탐방



화청지 역사문화 탐방 (2014. 10. 19.)

화청지는 양귀비(본명 양옥환)의 저택으로서 당 현종과 양귀비의 로맨스가 엮인 곳으로 중국에서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당나라 왕실 원림이다. 화청지는 서안에서 약25km 떨어진 여산 산록에 있는 온천으로 당나라의 현종과 양귀비가 함께 겨울을 지냈던 곳으로 화려한 누각들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양귀비가 목욕하던 해당탕과 현종이 목욕하던 연화탕은 그 냉수와 온수(온천수)의 흐름을 통제하던 수로 시설은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어떤 수로시설보다 현대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1931년 당시 산시성 정부가 정식으로 “화청지”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붙였고, 1936년 12월에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열렸던 “서안사변”도 이곳에서 발생했으며, 현재에도 여산 정상에는 “착장정”이라는 정자가 남아 있어 고대 중국의 건축구조를 엿볼 수 있다.

진시황 사후세계를 지키기 위한 병마용 탐방



병마용 역사문화 탐방 (2014. 10. 18.)

이번 중국 역사문화탐방의 백미인 병마용은 흙으로 빚어 구운 병사와 말을 가리키는데 진시황이 사후에 그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꼽힐 만큼 경이로운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병마용은 서안시내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있으며 진시 황릉에서 북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에도 발굴이 진행 중이며 총 3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 1호갱(선봉 주력부대)

1호갱은 거대한 돔으로 덮어 만든 3열 횡대로 늘어선 6,000개의 병마용과 40여 승의 목조전차가 안치되어 있다. 1호갱은 우리가 흔히 사진에서 많이 본 병마용으로 토용(흙인형)전부가 동쪽을 향해 질서정연하게 놓여져 있는데 그 숫자가 6,000개에 실제 크기는 178~187cm 정도로 사람의 실제 크기로 되어 있으며, 그 수많은 병마용의 얼굴

표정이 모두 다 다르게 생겼다고 한다.

이곳에 있는 병마용들은 대부분이 갑옷을 입고 손에 창 등 장병기 및 궁노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중무장한 주력부대들이었다고 한다. 현재는 그 큰 발굴 현장을 돔 지붕을 덮어놓고 관리하고 있다.

○ 2호갱(기마부대)

2호갱은 전차병 부대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가장 발굴이 더딘 곳으로 1호갱보다 규모가 적어 900여개의 병마용과 기병용 안마 116필, 전차를 멘 토마 350여 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적지만 1호갱보다 다양한 모습이었다.

1호갱이 선봉 주력부대라면 2호 갯은 기동력이 있는 기마부대일 것으로 추정 된다고 한다.

○ 3호갱(작전 지휘실)

3호 갯은 3개의 갯중 규모가 가장 작아 병마용의 수도 가장 적다 다른 2개의 갯은 전투 대열로 진열되어 있지만, 3호갱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통로 양쪽에 정렬해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 지휘기관을 보위하는 경위 부대임을 알 수 있으며, 86개의 토형이 있는 3호실은 지휘관 부대가 놓여있는 곳으로 수는 적지만 가장 값 비싸고 정교한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다. 3호실의 특징 중 하나는 얼굴 없는 인형이 많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가장 나중에 만들다 보니 진시황의 죽음과 함께 완성되지 못한 채 그대로 지하세계에 들어 왔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실제 진시황의 군대 지휘관 인물을 본따 만들었기 당사자가 피해를 볼까 싶어 얼굴만 따로 숨겼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병마용은 서안 최대의 역사문화 관광지로서 매일 평균 5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고 1인 관람료가 한화로 약 30,000원 정도이니 하루 관광 수입만 해도 엄청난 액수이다.

1. 방문후기

제7대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공무국외 연수 추진을 위하여 여러 차례의 협의와 간담회를 거쳐 연수국가를 중국(서안, 곤명)으로 정하고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우수한 사례와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4박 5일간의 중국연수 일정에 들어갔다.

연수 첫날 인천공항에서 중국행 비행기를 탑승하여 3시간여 비행 끝에 서안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도착하자 처음 우리를 기다린 것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짙은 황사였다. 가이드의 말로는 서안은 1년 365일 거의 황사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 서안시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했다.

공항 근처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이번 연수 첫 공식 방문지인 서안 고신개발구 홍보관을 방문 시찰하였다.

서안 고신개발구는 우리의 산업단지와 같은 의미로서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서부 대개발 정책의 전략적 요청지로서 과학기술, 교육수준이 높고 글로벌 IT기업들의 생산, 연구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특히 삼성전자, 심텍전자, KMW, 한국공물 자원공사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서안에는 총7개의 국가급 개발구가 있으며 국가에서 반포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우혜정책 외에 서부 대개발 우혜정책, 산시성의 외상투자기업 우혜정책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중국 서부지구에 적용 가능한 우혜 정책으로 세수, 투융자, 토지사용 혜택 등이 있다.

홍보관 관리위원회 홍성균 팀장으로부터 고신개발구 현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건립함으로써 서부대개발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산시성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70억달러를 투자해 중국내 단일 외자 투자규모 중 최대이며 삼성의 서안 투자배경에는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 값싼 노동력 및 풍부한 전력, 용수 등과 산시성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구미 5공단에 삼성의 이러한 투자가 있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앞으로 구미의 새로운 먹거리인 5공단에 대기업 및 외투기업 투자유치에 구미의 모든 역량을 걸어야 한다고 연수단 일행은 입을 모았다.

다음 일정으로 방문한 곳은 당나라 현장 법사가 가져온 불경,불상을 보관한 대안탑이다. 서안시 남쪽 약 4km 지점의 안탑촌에 있는 대안탑은 원래 명칭은 자은사탑이며 당나라 고종때 건립된 4각형의 누각식 탑이며 모두 7층으로서 전체 높이는 64m로서 실로 굉장한 규모였다. 유적지에 대한 보전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특히 자연 경관과 조화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석식 후 우리는 곧명으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서안 공항에 도착하였다. 약 3시간여 비행 끝에 곧명 공항에 도착, 23시경에 호텔에 투숙하여 첫날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둘째날 첫 방문지 석림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고 곧명시에서 동남쪽으로 약 86km정도 떨어진 석림 이족 자치구에 있으며, 약 400평방키로미터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에 돌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석림 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로 이동하고 견학하였는데 높이가 적은 석림을 소석림, 높은 석림을 대석림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석림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원내 시설물의 건축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느꼈고, 화장실 건축이나 중간중간 놓인 휴지통을 보더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석림의 입장료는 성인 1인당 한화로 27,000원으로 중국 국민들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매우 비싼 수준인 것 같았다.

구미의 금오산(탄소제로교육관)과 같은 관광명소에도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관광 상품 개발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느껴졌다.

석림이 지상의 볼거리라면 구향동굴은 지하선경이다. 석림에서 쿤밍 쪽으로 34km 떨어져 있고 발견된 지 3년 후인 1992년 일반에 공개된 종유석 동굴이다. 동굴탐사로는 3.2km, 계단만 1,300개를 헤아린다. 입구로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60m 계곡 아래로 내려갔다. 10인승 배를 타고 10분 정도 소수민족의상을 입은 여인의 노랫가락을 들으며 협곡유람을 즐긴 다음 본격적인 동굴탐험에 나섰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동굴은 한여름 동굴음악회도 열었던 2만명 수용 규모의 동굴광장을 지나 자웅폭포로 이어진다. 한국 여배우인 김희선과 성룡이 주연한 영화 '신화'의 배경으로도 등장한 동굴 속 폭포인데 물줄기의 기세가 대단하고 웅장하였다.

기암괴석의 동굴을 지나 광장에 도착했다. 꼭대기에 사자상이 보였다. 저팔계, 오리, 사오정, 삼장법사, 성모마리아, 견우와 직녀가 만났다는 오작교, 신여궁, 종유석이 신의 밭(神田)이라 불리는 다랑논이 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폭포를 지나 다랑논이 경이롭고 감격스러웠다.

동굴 한편에는 시력이 없는 물고기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캄캄한 곳에 있다 보니 시력이 퇴화되었다고 가이드가 설명한다. 위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모두 돌 뿐이다. 물의 흐름은 아래로 흘러 축축한 돌계단을 따라 신전에 올랐다. 마지막 코스로 330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기에 빨리 흔들의자를 누군가가 권한다. 이 흔들의자는 인력꾼 두 사람이 말을 태우듯이 오르는데 몇몇 일행을 태우고 나머지는 계단을 오른다. 인력거 타는 비용은 우리 돈 2만원이라고 한다. 연신 헉헉 가쁜 숨을 내며 힘들어하는 인력꾼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계단을 따라 올랐다.

이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면서 금오산에도 이런 케이블카를 운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셋째날 오전에는 “곤명 신농기업그룹 농원”과 오후에는 “서산용문”과 “곤명호”를 차례로 견학하였다.

곤명 신농기업그룹 농원은 대단위 개인 소유 농원으로서 생산에서부터 판매, 체험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대지면적은 약200,000m², 하루 관람(체험)객 수는 평균 6,000여명이고, 우리가 방문한 날도 이미 몇천

명의 학생이 학생이 예약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로 중국인구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평소 농업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양진오, 강승수 의원은 현장 총책임자(봉진숙)의 설명을 주의깊게 들어면서 옥성 화훼단지와의 연계해서 가족 농장 체험공간이 구미에도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점심식사를 한 후 연수단 일행은 오후 일정을 마치러 서산으로 향하였다. 3대에 걸쳐 72년간 뚫었다는 서산 용문석굴, 리프트를 타고 20여분 올라간다. 340평방키로 미터나 되는 큰 ‘곤명호수’가 훤히 내 보였고 곤명시내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호수는 중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담수호로서 녹조현상을 띄고 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큰 호수다. 대부분 올라가면서 구경하는 것인데 여기를 올라오면 반대로 800계단을 내려가면서 석굴을 봐야한다.

용문석굴에는 도교와 불교와 유교가 혼재해 있다. 용문에서 내려가는 길은 300미터 절벽을 사람이 직접 뚫어서 만든 길이었다. 저기 ‘달천각’이라는 석굴이 보였다. 천장의 돌을 쪼이면서 돌가루가 들어가지 않도록 천으로 눈을 가리고 쪼았다고 해서 맹각이라고 한다. 위의 작품은 스승이 했고 그 밑에는 제자의 작품이라 솜씨가 완전히 달라 보였다.

용문입구에 들어서자 용문이라고 쓰인 글자 밑에 반구형의 돌출부분이 있는데 이게 여의주이다. 남자는 왼손으로 여자는 오른손으로 만지면 출세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평범한 잉어가 폭포를 뛰어 넘으면 용으로 변신을 했다고 해서 등용문이라는데 장원급제, 방원급제, 타마급제라 하여 급제에도 급수가 있다. 만질 것도 많은데 뱀과 거북의 순서로 만져야 장수한다고 하고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고 싶으면 송아지를 만지라고 한다. 또한 “용문에 한번 오르면 몸값이 100배 오른다”는 속설이 있다고 현지인들은 전한다. 전동차를 타고 다시 버스에 오른 다음 우리 일행은 첫 방문지인 서안으로 다시 가기 위해 곤명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곤명 공항에서 약 2시간 비행 후 서안국제공항에 도착, 석식 후 호텔에 투숙하여 뽐뽐했던 3일째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연수일정 4일째는 서안 역사문화유산을 탐방하였다. 먼저 방문한 화청지는 양귀비(본명 양옥환)의 저택으로서 당 현종과 양귀비의 로맨스가 엮인 곳으로 중국에서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당나라 왕실 원림이다. 화청지는 서안에서 약 25km 떨어진 연산 산록에 있는 온천으로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가 함께 겨울을 지냈던 곳으로 화려한 누각들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양귀비가 목욕하던 해당탕과 현종이 목욕하던 연화탕은 그 냉수와 온수(온천수)의 흐름을 통제하던 수로 시설은 환경 보호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그 어떤 수로시설보다 현대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음은 이번 중국 연사문화탐방의 백미인 병마용을 견학하였다. 병마용은 흑으로 빚어 구운 병사와 말을 가르키는데 진시황이 사후에 그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꼽힐 만큼 경이로운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현재에도 계속 발굴이 진행 중이며 총 3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먼저 1호갱은 선봉 주력부대로서 우리가 흔히 사진에서 많이 본 병마용으로 토용 전부가 동쪽을 향해 질서정연하게 놓여져 있는데 그 숫자가 약 6,000개 정도로 사람의 실제 크기로 되어 있고 그 수많은 병마용의 얼굴 표정이 모두 다 다르게 생겼다고 한다.

2호갱은 기마부대로서 900여개의 병마용과 기병용 안마, 전차를 멘 토마 등 규모는 작지만 1호 갱실보다 다양한 모습이었다. 1호갱이 선봉 주력부대라면 2호 갱은 기동력이 있는 기마부대일 것으로 추정 된다고 한다.

3호갱은 3개의 갱중 규모가 가장 작아 병마용의 수도 가장 적다, 다른 2개의 갱은 전투 대열로 진열되어 있지만, 3호갱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통로 양쪽에 정렬해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 작전 지휘실로 추정된다고 한다.

병마용은 서안 최대의 역사문화 관광지로서 매일 평균 5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어 1인 관람료가 한화로 약 30,000원 정도이니 하루 관광 수입만 해도 엄청난 액수이다.

이처럼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이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은 물론 엄청난 관광수입으로 이어짐을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이날 공식일정을 모두 마치고 석식 자리에서 구미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연수 마지막 날 우리 일행은 공항으로 이동 중 6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명대의 성곽 양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서안 성벽을 버스 차창으로 관람하면서 연수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4박5일의 짧은 일정동안 중국 대륙의 일부분의 견문을 느끼고 돌아오는 길에 “우물안의 개구리”와 같던 우리 연수단 일행은 중국은 아직 못사는 나라라고 치부하던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깰 수 있었다. 조만간 지난 역사와 현재를 조화롭게 일구어 미래에 대단한 잠재력을 지닌 나라 중국을 다시 읽게 될 것이다.

이번 연수의 핵심이었던 서안 고신개발구 진출기업의 산업현장 현지 답사와 중국의 관광산업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4박5일 중국연수 기간 중 황사라는 뜻밖의 손님과 뻘뻘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였고,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

아울어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우수한 사례와 새로운 정보를 우리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 정책제언

가. 구미국가 5단지 내 대기업 및 외투기업 투자 유치

-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최근 첨단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그 중심에 서안 고신개발구가 있다. 삼성전자가 70억달러 규모로 설립한 반도체 공장은 수많은 관련 중소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삼성의 서안 투자 배경에는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 값싼 노동력 및 풍부한 전력, 용수 등과 무엇보다도 산시성 정부의 전폭적이 투자유치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해평·산동면에 283만평 규모로 조성중인 구미국가 5단지에 첨단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업종 대기업 및 외투기업 투자 유치활동에 구미시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기업이 원하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미래 구미 먹거리 창출 방안을 적극 검토

나. 주요 관광지 및 낙동강변에 소형 전기자동차 운행

- 석림 및 서산용문 등 문화유산 관광지 마다 전기자동차를 통한 관람객들 편의 및 체험기회를 제공 하고 있음.
- 우리시에서도 금오산 주차장에서 대구·경북권 대표적인 기후변화 체험 공간인 탄소제로교육관 사이 소형(10~15인승)전기자동차를 상시 운행하여 탄소제로도시 구미의 위상 제고와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 시민들의 관심 유도를 위해 운행을 제안함.
- 또한 동락공원, 낙동강 체육공원, 낙동강 제방 순환도로 등에 전기 자동차 수십대를 투입 운행함으로써 탄소제로도시 구미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여 관광수입 증대를 기대함

다. 구미시티 투어 2층 관광버스 도입 운행

- 중국 시내에는 쉽게 2층 시내버스를 볼 수 있음. 2014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구미시티 투어에 2층 관광버스를 도입 운행하여 구미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구미만의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행 제안

라. 구미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 발굴

- 스토리텔링은 도시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문화브랜딩 사업으로 하드웨어적인 투자만큼이나 문화,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중국의 대부분의 관광명소는 이처럼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관광 자원으로서 구미의 명소에도 일방적으로 체험시키는 관광 콘텐츠 투어보다는 문화권이 다른 각 지역의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 콘텐츠에 스토리를 입히는 맞춤형 코스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왕건의 발자취, 광재우 장군,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 운동, 서원·향교·불교 초전지와 같은 유·불교 문화 유적지 등 구미의 문화와 역사를 배경으로 구미에 숨겨져 있는 문화, 자연, 산업, 장소, 시설스토리를 적극 발굴하여 도시의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 검토
- 덧붙여 중국은 자연경관을 보존 유지하면서 케이블카, 리프트를 설치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어 우리 금오산에도 폭포와 정상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 운영 제안

마. 우리시 대표 전통주(민속주) 개발 검토

- 중국에는 몇천가지의 전통주가 있고 또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민속주를 다양하게 관광 상업화시켜 판매·활용되고 있음
- 국내 타 지역에도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주와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민속주가 상업화 되어 축제 및 특산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구미시에서도 특화된 민속주를 개발하여 지역 홍보는 물론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